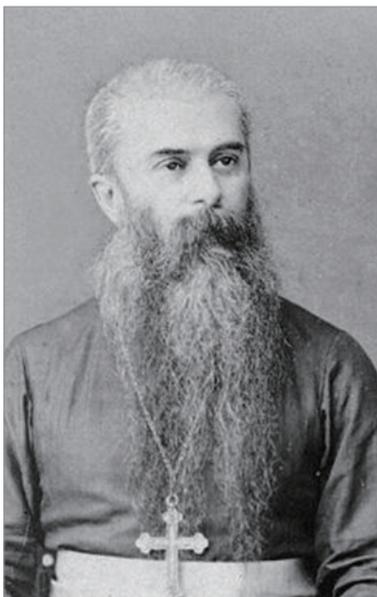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선교사제 영입 과정에 참여한 최지혁 요한 관련 자료 (1)

- ‘하느님의 종’ 시복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블랑 신부(주교)의 서한 내용 -

최지혁(崔智赫)[다른 이름은 선일(善一)] 요한은 1866년 천주교 박해 때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배를 마련하여 리델 신부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의 사전 편찬을 돕고 신입 선교사제들의 조선어 교육을 맡았습니다. 또한 중국과 조선을 오가면서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선교사제의 조선 입국을 도왔습니다. 1876년 5월 블랑·드게트 신부가 조선에 입국할 때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서울로 인도하여 집주인 역할을 했고, 리델 주교가 두세·로베르 신부와 함께 1877년 9월 재입국할 때도 리델 주교와 함께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리델 주교의 입국 사실이 탄로 나자 1878년 1월 28일에 주교와 최지혁 부부, 주교댁에 살던 신자들이 잡혀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리델 주교는 그해 6월 중국으로 추방되었지만 다른 신자들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고, 최지혁은 7월 14일 포도청 감옥에서 아사(餓死)로 순교했습니다.



제6대 조선대목구장 리델(Ridel) 주교  
(1830~1884)



리델 신부와 조선신자들(1866년 7월, 중국 상해) 사진 맨 왼쪽의 노인이 최지혁 요한

한국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최지혁[최선일] 요한과 이야기[李阿只] 루치아 부부가 포함된 13위 ‘하느님의 중’의 약전(2018년)과 시복 자료집(2023년까지 4책)을 편찬·간행했습니다. 시복 자료집 제4집(2023년)에는 최지혁의 가계도, 교회 기록[치명일기, 병인치명사적, 기해·병오 순교자 증언록, 선교사제들의 서한, 리델 주교의 옥중기, 뮌텔 문서], 관변 기록[포도청등록, 추안금국안], 사찬 기록[달래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드브레 주교의 ‘한국의 천주교’, 최 바실리오 이력서]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중 선교사제의 서한에는 리델 주교가 동료 선교사제나 가족, 친구에게 보낸 서한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 블랑 신부, 드게트 신부, 뮌텔 신부가 보낸 서한이 각 1통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블랑 신부(주교)의 서한들 중에 최지혁[‘최 요한’, ‘요한 노인’으로 나옴]이 언급되는 서한이 여러 통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위의 ‘시복 자료집 제4집’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거나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랑 신부가 1876~1877년에 걸쳐 고마청골(雇馬廳洞, 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집에서 집주인 최지혁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6월호에서는 ‘시복 자료집 제4집’에 수록되지 않은 최지혁 관련 블랑 신부(주교)의 서한 기록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1870년대 선교사제의 재입국과 사목활동 과정에서 최지혁이 수행했던 일들과 순교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거 : 판독본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화위원회 편찬, 『A-MEP Vol. 580(A) Corée 1875-1886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2011 ; 『A-MEP Vol. 581(A) Corée 1887-1900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2011 / 번역본 - 제제구(Jézégou, 崔世敎, 1930~2023) 신부의 수고본[미간행].]

## 1866~1868년 상해에서 선교사제들을 수행한 조선 신자들[최지혁]의 활동 [블랑 주교가 중국 상해에서 메르시에 신부에게 보낸 1867년 6월경 서한[발췌본] / A-MEP, Vol.581, ff.438~439]

1867년 당시, 신입 선교사제 블랑 신부는 상해에 도착하여 동료 마르티노, 리샤르 신부와 함께 조선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롱 신부와 리델 신부는 1866년 천주교 박해 때 없어진 조선어 사전과 문법책을 편찬하는 중이었고, 칼레 신부는 조선 신자 3명과 함께 중국 요동으로 가서 조선 입국로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혁을 포함하여 상해에 남아 있던 조선 신자 7명[리델 신부의 중국 탈출과 병인양요 때 중국으로 건너온 신입 선교사제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붓글씨에 능한 최지혁이 조선어 철자를 썼고 이것이 『한불자전』과 『한어문전』을 인쇄할 때 활자 유형의 본보기로 사용되었다는 점[드브레, 『한국의 천주교 : 그 기원과 발전』, 1924, 63~65쪽; 시복 자료집 제4집, 354~359쪽]에서 볼 때 1866~1868년 상해에 머물 때 최지혁이 선교사제들의 사전·문법서 편찬을 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 1876년 5월에 입국한 블랑·드게트 신부를 고마청골 집에 모시다 [블랑 신부가 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1876년 5월 14일 자 서한 / A-MEP, Vol.580, ff.93~103]

1876년 5월 조선에 입국한 블랑과 드게트 신부는 최지혁이 마련한 고마청골 집으로 5월 10일에 입주했습니다. 블랑 신부는 조선에 들어와 처음으로 작성한 서한에서 집주인 최 요한 노인[최지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동료 드게트 신부가 입맛에 맞지 않은 조선 음식을 잘 먹지 못하자 집주인 최 요한이 걱정했다는 내용, 5월 11일 최 요한과 이야기를 나눌 때 블랑 신부와 함께 조선 입국을 시도하다가 신자들의 만류로 중국으로 돌아간 리델 주교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말한 내용, 최

요한이 전교 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금괴가 조선에서 불편하다고 리델 주교에게 따로 서한을 썼을 것이라는 내용, 최 요한이 빚은 탁주[막걸리]가 전에 [중국에서] 먹어본 탁주보다 훨씬 맛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입 선교사제인 드게트 신부가 최 요한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서적 『십이단』을 필사해서 신자들에게 나눠준다** [블랑 신부가 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1876년 10월 10일 자 서한 / A-MEP, Vol.580, ff.153~166]

1876년 10월 당시 블랑 신부는 조선천주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교리문답서를 포함한 교회서적의 보급을 들었습니다. 1866년 목판인쇄소가 폐쇄된 후 필사본으로 교회서적이 유통되었는데 당시 물가 상승으로 필사본의 가격이 너무 비싸 가난한 신자들이 책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초 교리와 기도문이 담긴 『십이단』(sip-i-tan)이란 책을 박 베드로라는 신자가 20부를 필사해서 팔려고 했지만 결국 살 사람이 없어 무료로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 노인[최지혁]도 『십이단』을 여러 부 베껴 무료로 신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서한에서 블랑 신부는 소화블랑과 설사에 시달리는 드게트 신부의 병세가 ‘다블뤼 주교와 많이 닮았다’는 최 요한의 말을 인용했고, 식량난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하는 최 요한의 고충도 언급했습니다.

**1877년 선교사제 영입에 대한 블랑 신부와 논의하다** [블랑 신부가 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1876년 12월 31일 자 서한 / A-MEP, Vol.580, ff.192~204]

1877년에 입국할 선교사제에 대해 블랑 신부는 2명만 입국해야 할 것이라고 서한에 적었습니다. 이 서한을 작성하기 얼마 전, 요한 노인[최지혁]에게 내년에 3~4명의 선교사제가 올 것이라고 하자 그가 두려운 마음에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많은 선교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최지혁과 블랑 신부 모두 공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국 후 블랑 신부는 신자들을 각 지역에 보내 그곳 신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경상도에는 요한 노인의 사촌 바실리오를 보냈고, 결국 대구에서 신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실리오의 동생 ‘최우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지혁이 최양업 형제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2020년 가을 『상교우서』 68호 지면[33~40쪽]을 통해 ‘최지혁이 최경환 성인의 큰조카이자 최양업 신부의 사촌 형’임을 밝혔는데, 위의 블랑 주교의 서한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78년 1월 리델 주교와 최지혁 등의 체포** [블랑 신부가 전라도에서 차쿠의 리샤르 신부에게 보낸 1878년 2월 5일 자 서한 / A-MEP, Vol.580, ff.264~266]

1878년 1월 28일 리델 주교와 집주인 최지혁 부부, 집에서 일하던 신자들이 체포되어 포도청에 투옥되었다는 것은 여러 선교사제들의 서한이나 리델 주교의 옥증기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블랑 신부는 전라도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김(성흠) 요한을 통해 리델 주교와 신자들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78년 7월 리델 주교의 석방과 최지혁의 구금 상황** [블랑 신부가 전라도에서 여동생에게 보낸 1878년 4월

12일 자 서한[7월 28일까지 기록] / A-MEP, Vol.580, ff.276~297]

리델 주교의 체포 소식 이후 전라도에 머물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던 블랑 신부는 4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리델 주교와 함께 최지혁 부부가 체포되어 포도청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7월 7일 리델 주교의 ‘중국 추방’[석방]이 확정되었지만, 최 요한 노인 [최지혁]을 비롯한 신자들이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1878년 최지혁을 비롯한 수감자에 대한 구호품 전달 계획** [블랑 신부가 경상도 거창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1878년 7월 7일 자 서한[7월 27일까지 기록] / A-MEP, Vol.580, ff.363~381]

7월 7일 리델 주교의 ‘석방’이 확정되자 블랑 신부는 주교가 중국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블랑 신부는 일반 신자들에게 서울 포도청 감옥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최 요한 노인[최지혁]과 신자들을 위해 돈을 모금하도록 권유했고, 모금한 돈으로 구입한 구호품[식량]을 감옥에 갇힌 신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최 요한 노인은 얼마 전에 병이 들었고, 함께 수감된 도둑들이 신자들을 많이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1878년 7월 최지혁의 옥중 순교와 블랑 신부의 연미사 봉헌** [블랑 신부가 전라도 고산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1878년 11월 25일 자 서한 / A-MEP, Vol.580, ff.513~514]

위의 7월 7일 서한[7월 27일까지 기록]을 작성할 때 블랑 신부는 최지혁의 사망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최 요한 노인[최지혁]이 7월 초반에 사망했음을 알게 된 블랑 신부는 곧바로 그를 위한 연미사를 지냈습니다. 블랑 신부가 집주인으로서 자신과 함께 생활했고 모든 일을 도와줬던 최지혁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전히 포도청 감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에 대한 정보도 기록했습니다.

**최지혁의 옥중 순교의 뒷이야기** [블랑 신부가 전라도 용담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1879년 5월 1일 자 서한 / A-MEP, Vol.580, ff.567~582]

블랑 신부는 1878년 7월 리델 주교가 석방된 이후 요한 노인[최지혁]을 비롯한 감옥에 남아 있던 신자들이 병으로 죽거나 블랑 신부의 지시로 구호품이 보내졌는데도 불구하고 굶어서 죽었고, 1879년 2월 11일에는 감옥에 남아 있던 신자들과 도둑들이 목이 졸려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